

■ 광주 외국어학원 무엇이 문제인가 **삼** 검증시스템 없다

‘가짜 학위’ 강사 판쳐도 자격증·전과 확인 불가

조기 영어교육 열풍을 타고 어학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지난 2002년 말 104개였던 광주지역 어학원 수는 6월 말 현재 195개로 4년6개월 동안 무려 87.5%(91개) 늘었다. 어학원들은 학부모들이 원어인 강사를 선호

하는 탓에 현지 영어강사를 끌어오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때문에 ‘무자격’ 원어인 강사 등 자질 미달의 외국인 강사가 속출하면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어학원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긴급 점검해 본다.

이들의 자국 내 범죄 전력 등의 행적을 투명하게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다. 이미 일부 외국인 강사들의 학생 성추행·폭력 등이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지만, 이들의 자국 내 전과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전과 조회를 위해서는 대사관을 통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등 ‘프라이버시’(privacy)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처럼 부적격 외국인 강사들이 여전히 학원에 발붙이고 있는 데는 학원 측의 잘못도 크다. 회화지도 자격(E-2)이 있는 외국인 강사의 경우 체류비·왕복 항공료·주거비 등 적어도 월 평균 4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부 학원 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무자격’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 박종호 외사계장은 “학위 진위 여부를 해당 대학에 문의해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대로 확인을 해주지 않고, 전과조회도 대사관을 통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수사가 어렵다”면서 “외국인 강사 채용 과정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산천 제방 부실공사 현장

부실공사로 준공 7개월 만에 무너진(본보 7월10일자 9면) 광주시 동구 윤림동 동적골(동조골) 동산천 제방 복구 공사 현장. 콘크리트 배수관 없이 배수구만 설치하고(왼쪽), 다른 한쪽은 비닐로 덮어 물길을 만들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자국 대사관 ‘프라이버시’ 이유 꺼려 학원선 비용 줄이려 무자격자 고용

외국인이 한국에서 모국어를 가르치는 강사가 되려면 회화지도(E-2) 비자가 필요하다. E-2 비자는 지난 2005년 전까지는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는 학위증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학위 위조 사이트나 브로커를 통해 만든 가짜 학위로 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

이처럼 가짜 학위를 갖고 원어인 강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에선 이들의 학위를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05년부터 해당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증 발급 지침이 강화되자, 이제는 관광(D-3)·유학(D-2) 비자로 들어와 강의를 하는 ‘무자격’ 외국인 강사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에 관광 비자 등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브로커를 통해 어학원에 위장 취업하고 있는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농기계 자금 부정대출 농민 등 63명 적발

경찰, 농협직원 조사

농기계 구입지원 정책자금을 부정하게 대출받은 무안지역 농민들과 농기계 대리점 업주·농협 직원 등 6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농기계 구입지원 정책자금을 부정하게 대출받은 조모(42)씨 등 농민 58명과 농기계 판매사 김모(37)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현지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고 이들에게 대출을 해 준 박모(32)씨 등 무안지역 농협 직원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 농민들은 D공업 무안대리점 업주 김씨와 짜고 2005년 1월부터 2천600만원짜리 트랙터 결속기(벙치류는 농기계)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 개인당 1천600만~1천950만원씩 총 11억원의 농기계 구입 지원 정책자금을 부정대출했다.

경찰은 특히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어학원에 공급해주는 알선 브로커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또 외국인 강사를 고용한 일부 유치원과 사설학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출발은 협의다. 박씨 등 농협 직원들은 대출 신청 시 농기계의 구입 사실을 현지 확인해야 하는 데도 평소 친분 등을 감안, 대리점 업주가 제출한 농기계 사진만 믿고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농민들은 이종으로 대출받은 뒤 트랙터만 구입했으며, 거처 기한(1년 거처 7년 상환)이 지난 32명 중 30명은 대출금을 전혀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가짜 졸업증명서 등 밀반입 급증

인천공항, 올 6월까지 12건 70점 적발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 각종 공문서나 사문서를 해외에서 위조한 뒤 밀반입하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4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특급 탁송화물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위조 공문서나 사문서는 모두 12건에 70점으로 집계됐다.

문서 종류별로 보면 졸업증명서 26점, 성적증명서 10점·

수표 6점·여권 5점·외국인등록증 4점 등이다.

세관에 단속된 위조 문서는 2004년 20점에 불과했다가 지난해 80점으로 늘어났다.

세관 관계자는 “국제 특급 탁송화물을 이용, 상업용 서류나 홍보용 책자 등과 같은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 및 전화기 포장박스에 가짜 서류들을 은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외국인 강사 수사 확대

브로커 검거 수사 집중

‘무자격’ 외국인 학원 강사를 수사 중인 광주지방경찰청은 24일 “단속과 함께 종적을 감춘 외국인들이 많은 점으로 볼 때 실제 무자격 강사는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어학원에 공급해주는 알선 브로커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또 외국인 강사를 고용한 일부 유치원과 사설학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초등 여학생 유괴·납치

수사 김새 알아채고 2시간 만에 풀어줘

범인 “몸값 7천만원 달라”

초등학교 여학생이 유괴범에 납치돼 2시간30여분 만에 풀려났다.

24일 오전 9시53분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H아파트 입구에서 J초등학교 2학년 김모(9)양이 코란도 승용차를 탄 남·여 2명에게 납치됐다.

납치범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구 치평동 공중전화 등에서 김양의 부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밥을 다시 보고 싶으면 현금 7천만원을 가지고 오후 12시까지 조선대학교 잠미공원으로 나오라”고 요구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복형사 50여명을 조선대에 배치했지만 납치범들

은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또 납치범들이 전화를 건 치평동·매월동·대촌동 공중전화 발신지를 추적했으나 범인 검거에 실패했다.

납치범들은 낮 12시30분께 김양을 서구 금호동 Y아파트 앞에 내려준 후 달아났다.

경찰은 납치범들이 김양 가족을 잘 아는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으며, 조선대 차량 출입구에 설치된 CCTV를 분석 중이다. 또 김양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175cm의 흰색 체크무늬 상의와 검정 바지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납치범들이 김양 가족을 잘 아는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으며, 조선대 차량 출입구에 설치된 CCTV를 분석 중이다. 또 김양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175cm의 흰색 체크무늬 상의와 검정 바지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현주·김여울기자 ahj@kwangju.co.kr

8년 도피 공소시효 5일 앞두고 달미



○지역 축제 현장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 중이던 30대 남자가 8년 가까이 도망다니다 공소시효를 불과 닷새 앞두고 경찰의 불심 검문에 달미.

○지난 2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폭력혐의로 기소된 손모(30)씨는 지난 1999년 3월20일 구례 산수유 축제 현장에서 공범 13명과 함께 음식 60만원어치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행인들을 폭행한 후 달아났다가 지난 19일 붙잡힌 것.

○폭력행위 등 공소시효는 7년으로 손씨의 공소시효는 지난해 3월19일이었지만, 공범들이 기소된 뒤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효가 정지돼 1년 4개월 연장된 상태.

○손씨는 “며칠만 지나 잡혔으면 교도소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라며 아쉬운 표정.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